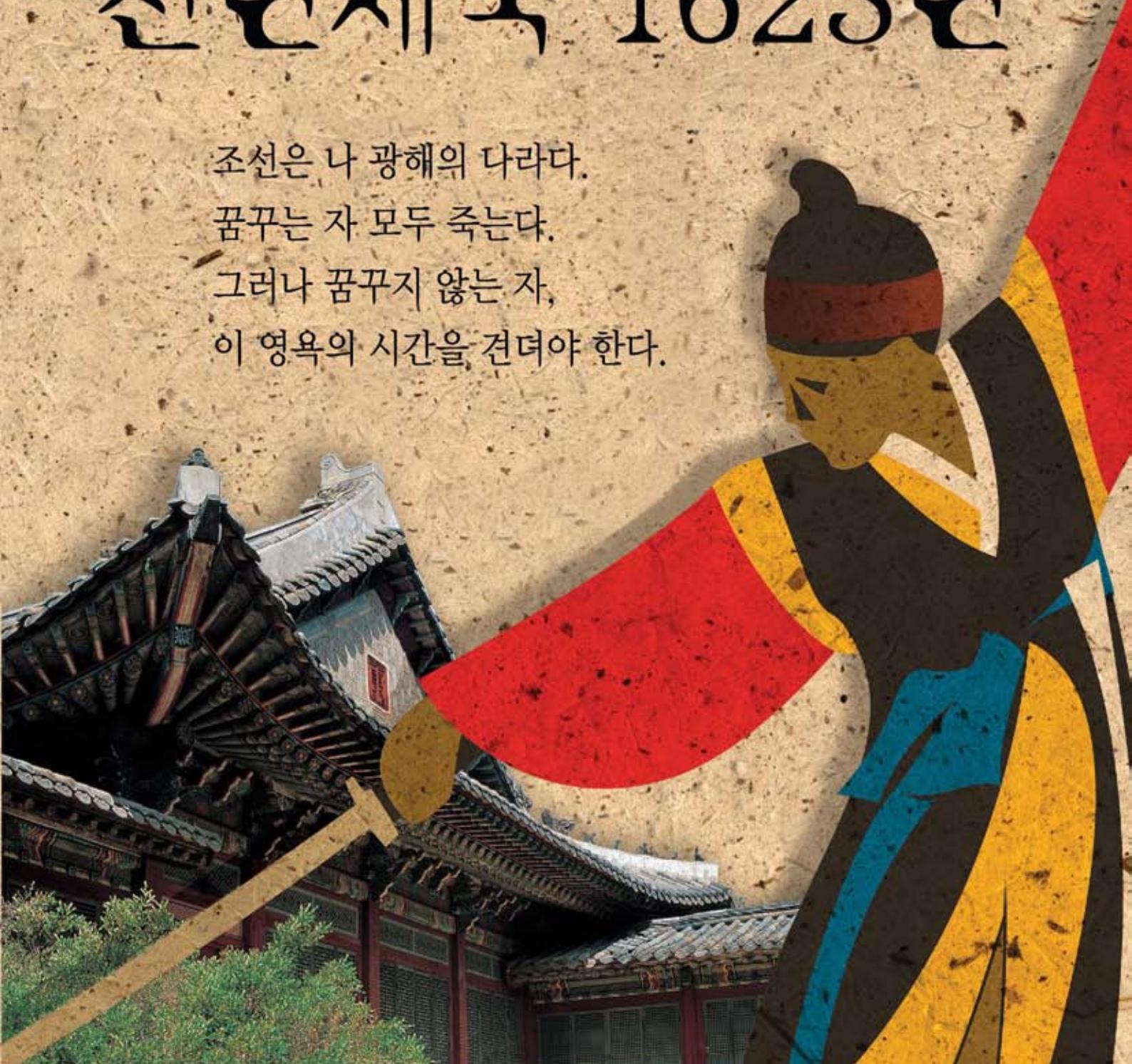


숭대극회 2007년 동문합동공연

천년제국 1623년

조선은 나 광해의 나라다.
꿈꾸는 자 모두 죽는다.
그러나 꿈꾸지 않는 자,
이 영욕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 작 : 차근호 | 연출 : 박경근 | 기획 : 숭대극회 동문회

| 출연 : 이준석, 이상혁, 김진욱, 윤대현, 김영걸, 이원진, 김현우, 황금실, 이고운, 양현준,
윤장한, 이옥제, 박용혁, 정현승, 박인수, 이경윤, 정다운, 김명희, 김수진, 안선후, 신영준

| 일시 : 9월6일(목) 오후7시30분 | 장소 :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9월7일(금) 오후7시30분 | 주관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9월8일(토) 오후2시/6시

초대의 글



윤대현 (극회장-03학번)

안녕하십니까.
승대극회 동문 합동 공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수함'

이번 공연은 이 한 단어로 모든 걸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동문 공연이었지만 재학생들의 순수함으로 첫 수레의 바퀴가 돌기 시작하여 졸업생들의 순수한 마음이 모아져 힘찬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도움으로 이제 여러분 앞에 천년제국 1623년이 펼쳐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름내 내 연습에 힘쓴 캐스트 스텝 선후배, 동기님들 우리의 연출님 경근이 형, 재진이, 난 마작이일 뿐이라며 힘든 일을 떠맡으신 준석이 형, 현준이 형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번 공연의 주인공!!!

뒤에서 도와주신 모든 극회인들께 감사 드리며 당신들이 있기에 전 몇 년 후 다시 동문합동 공연을 꿈꿉니다.



허공 (동문화장-84학번)

1921년 6월 연홍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폴레옹의 말로" 이후 86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 100회의 공연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회 한회의 공연이다 소중하지만, 특히 이번 공연은 승대극회 동문화의 결성이후 처음으로 갖게되는 동문합동공연인지라 그 의미가 특별하다 하겠습니다.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 많은 인연이 있겠지만, 우리 승대극회 가족의 만남은 참으로 뜻깊은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여러 사람이 연극이라는 매체로 한자리에 모여 같이 어울려 땀흘려 땁굴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진한 인연을 이어나

가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야말로 같이 살아가며, 같이 인생을 논하고 희로애락을 나누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 저세상에 갔을 때에도 다시 만나 같이 연극하고픈 그런 인연입니다.

승대극회 사람들 참 좋습니다.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안타까운 것이, 이 좋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동문합동공연이야말로 이 어우러짐을 위한 자리입니다. 같이 한 학창 시절은 없었지만, 또한 같이 한 학창시절이지만, 그동안 어울리지 못한 우리 승대극회인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어울림은 더욱 커질 것이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동문합동공연은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같이 참여하여 만들어 낸 한판 놀이마당입니다. 승대극회인과 승대극회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한데 어울려 질펀하게 한번 놀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해군에 대해서

조선왕조 제15대 왕으로 재위기간은 1608년에서 1623년까지이다.

선조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공빈 김씨이다.

세자 책봉 문제로 임해군과 갈등을 빚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을 때 군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피난지 평양에서 세자에 책봉되었다. 임진왜란 기간 중에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를 돌면서 민심을 수습하고 왜군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를 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분조활동을 전개하였고 서울을 수복한 후 전라, 경상도로 내려가 군사들을 독려하고 군량과 병기 조달은 물론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는 등 임진왜란 기간 동안 국가 안위를 위해 노력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가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임진왜란 동안 많은 공을 세운 광해군이 대북파의 지지를 받아 1608년 왕위에 올랐다.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영창대군을 1613년 대북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서인으로 삼았고, 영창대군은 강화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듬해 살해당하였다. 1618년에는 이이첨 등의 폐모론에 따라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서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서인 주도의 반정(反正)에 의해 폐위당하였다. 비록 인조반정에 의해 폐위되었지만 1608년 선혜청을 뛰어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고, 1611년 양전을 실시하였으며,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한성부의 질서를 회복하고 궁궐 조성공사에 힘을 다하여 창덕궁을 중건하고, 경덕궁, 인경궁을 준공하는 등 많은 업적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때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신홍국가로 성장하여 후금을 전국하고 조선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광해군은 이에 대비하여 국경방비에 힘썼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여 명에서 원군요청이 있자 강홍립에게 1만의 병사를 주어 파견함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후금에 투항하게 하여 명과 후금 사이에서 능란한 외교솜씨를 보였다. 일본과는 기해약조를 체결하여 임진왜란 이후 중단되었던 외교를 재개하고, 회답겸쇄환사로 오윤겸을 일본에 파견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을 쇄환하였다.

서적의 간행에도 힘을 기울여 《신증동국여지승람》, 《용비어천가》, 《동국신속삼강행실》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 《선조실록》 등을 편찬하였으며, 적상산성에 사고를 설치하였다.

서인이 주동하여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1623년 폐위되어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제주도로 옮겨졌다. 오늘날 광해군의 공과(功過)는 양면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붕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측면이 있다.

이번 연극에서는 광해군이 폭군이지 성군인지를 구별하기보단 인간으로서 광해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했다.



기획부



이준석-85학번



권형진-86학번



송근호-87학번



양현준-90학번



이명성-92학번

1 막-막집이들 어려움을 알기에 스스로 자처하기엔 힘든 역활이였다.
우리들은 곧 '좋은 친구들'이 되었다.

2 막-시작 시작부터 크나큰 난제들이 많았다. 그중에서 그나마 있던 대학극장도 없어지고, 학생들이 마음껏 끼와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극장하나 없는 학교의 현실속에서 우리는 숭실대 동문으로서 개탄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진정한 교육 문화가 무엇인지 의구심마저 들었다.

3 막-연습 공연 연습이 시작되고, 동문후원금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이기에 '가난한 연극'을 외치며 힘찬 연습이 시작되었다.

4 막-땀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함은 더해 갔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관객을 위하여..

5 막-새로운 시작 이번 공연의 끝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동문들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공연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알찬 만남을 다져가야 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승대극회여 영원하라!



연출부



박경근 (졸업생 연출-82학번)

두 번의 동문 합동 공연이 잊혀질 즈음... 세 번째 합동 공연을 하잔다. 설레임과 "나"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갈 수 있다는 곳과 찾아주는 이 있음을 어느 위대한 시인이 노래 할 수 있을까...
그래!!
그러나!!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입학한 초등학생처럼 학교를 다시 찾았다.
와!!(한경직 기념관은 위대하다? 뭐가...)

재밌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알런, 뱃살좀 빼시죠?
우리 선후... 짜식....! 사랑한다. 금실아...! 무대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을걸.....
수진! 널 보면 많이 속상하고 미안하네.. 더 나이먹고 얘기하자
현준아...! 근호랑 셋이 찐하게 한잔 하자! 우리 광해 살아있는 눈빛,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동문들이여! 내 작은 가슴속에 그대들 가슴을 한번씩 안아주고 싶은 내 진심을.....
Bravo! Bravo! 동문 회장님과 극회장의 격려와 여러 선후배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S : 재진아. 짹짹(?)거리지 좀 마 ㅋㅋㅋ
꿈! 이루소서!



한재진 (재학생 연출-04학번)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빼버린 장면들이 있다. 내게는 재미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보다 뛰어난 감식안을 가져서가 아니다. 그 영화에 대한 모든 칭찬과 비난을 내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 시작 전에 관객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러분 재미없다고 하셔도 제가 여러분을 헷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재미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 주변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그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찰리 채플린-

Cast



광해군 (이준석-85학번)

다시만날 수 있어 좋았다.
함께한다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에 좋았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꾸려갈 수
있기에 더욱 좋을겁니다.
훈이형, 효진이, 영래, 숙이 고맙습니다.
승대극회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광해군 (이상혁-01학번)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봅니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이름 고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허균 (윤대현-03학번)

우리는 이론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행동이다!!!



이이침 (김진욱-07학번)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고래와 대항하여
싸우다 끝장을 내는 건가

Cast



한산 (김영철-85학번)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사관 (김현우-01학번)

내 인생 스무 살내 인생의 첫 공연이제 스무 살이 시작되려 한다



무화 (황금실-85학번)

하나의 배역을 맡아 무대에서 공연까지의 시간은 한 호흡이다.
꽃이 제 몸을 옮겨 피어나고 한번 더 옮겨 꽃잎을 떨어 뜨리는 그 사이가 한 호흡이듯이...
예순 갑자를 돌아온 아버지의 홍역 같은 삶이 한 호흡이듯이...



무화 (이고운-04학번)

자유로워라. 참으로 자유로워라바람의 냄새. 바람의 숨결. 바람의 날개짓

Cast



대신 (양현준-90학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무대에서의 꿈. 그 꿈을 찾아주신 나의 사랑 정숙, 재현, 재호, 나의 가족들My Family 숭 대극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윤대신2/백성/무사 (윤장한-01학번)

윤장한 선배님들, 후배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립/노사관/백성
(안선후-85학번)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한다 꿈을 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은가?
꿈은 꿈이기에 현실이 아니기에 더 행복하지 않은가?



상인/백성 (김수진-86학번)

10년뒤에 내가 또 다시 이 무대에 설 수 있을까나?

Cast



대신2/백성/무사 (이옥제-06학번)



유생1 (박용혁-06학번)

주 * 화기엄금 * 의



유생2 (정현승-06학번)

천년제국에서 ()은 제일 섹시하다
1. 유생 2. 정현승 3. 현승님 4. 현승님의 입술



대전내관 (이원진-03학번)

신데렐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드?아니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지 않을까?



유생3 (박인수-05학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을 중요할 수 있다하지만 나는 중요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나를 중요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 행복하다

Cast



기생1 (이경윤-05학번)

불빛처럼 날고 싶어



기생2 (정다운-07학번)

연극을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웃지요



기생3/젊은사관 (김명희-07학번)

연극은 멋지다!!



신백성/무사
(신영준-03학번)

4년만에 서보는 무대
두려움보다 떨림과 창피함이 앞섭니다.



화등 (최시온-선유조4)

Staff



무대감독
(김희명-82학번)



진행
(이보라-06학번)



섭외
(하승민-84학번)



진행2
(김봉성-06학번)



홍보1
(박원상-88학번)



무대장치
(박지승-03학번)



홍보2
(정석용-90학번)



기획보
(김구식-03학번)



조명
(민지은-06학번)



진행1
(이현종-07학번)



소품
(김명현-04학번)



무대미술
(박한경-06학번)

도움주신분들



분장-김숙희

분장
김숙희



타악
이유경



대금
김영민



대금
김기욱



무술-홍성범



안무-김선영

장면해설



#1 사관의 입적을 알리는 죽을 올리기 위해 들어온 신입사관과, 그를 안내하는 노사관. 왕들의 실록을 보며 경이로워 하는 신입사관에게 외팔의 노사관은 폐티한 군주의 역사로 치부되어 있는 선왕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2 대역을 도모했다는 죄로 인목대비의 목을 치가를 원하는 이이첨과 대신무리와 맞서는 광해는 아홉 살이나 어린 새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리라 그들의 의견을 듣지않아 대신들의 불만이 깊어져 간다.
불안하고 나약한 그의 자아는 둔파구를 찾지 못하고 자괴감에 허덕인다.

#3 보위에 오르던 날부터 꿈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을 발견한 광해. 그와 함께 선왕의 행적과 자신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교하친도를 시행한다.

#4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진 한양에서 교하로 친도하기를 원치 않는 이이첨과 대신들은 함께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뜻을 저부하고, 살망을 암고 돌아서는 광해에게 인목대비의 구슬픈 음을 소리는 더욱 그를 나약하게 만든다.

#5 허균의 각별한 제자였던 무녀 무화는 허균의 기일을 지리며 그의 영혼을 부르고 율도국을 찾아 떠나 하지만 허균은 생전에 충심으로 섬겼던 광해를 만나기 위해 반길을 들린다.

#6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내쫓은 것에 불만인 성균관 유생들과, 경기도 땅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한산은 서울로 상경할 제비를 한다.

#7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내쫓은 것에 불만인 성균관 유생들과, 경기도 땅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한산은 서울로 상경할 제비를 한다.

#8 청나라와 전투중인 명나라를 위해 강홍립을 앞세워 군사를 파병한 광해는 평나라가 곧 폐망할 것이라는 밀서를 접해 듣고는 기대와 기쁨에 벅차오른다.
몇잔 술에 잠이 들어버린 광해에게 허균의 혼령이 나타나 상군이 되기를 간청한다.

#9 쓰러져 있는 광해에게 다시 나타난 허균은 함께였던 옛 일을 회상하며 만민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칼을 들어 성군이 되라고 하고, 이후고 정신을 차린 광해는 평등한 나라는 곧 왕의 자리를 털낸 대역의 죄라 생각하기에 다시 찾아온 그의 말에 분개해 그를 다시 불러내고자 한다. 무화를 통해 나타난 허균과 광해는 치열한 언쟁을 벌인다.

장면해설



#10 한산의 말을 듣고 대역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한 이이첨과 대신들은 대기 한 번 인목대비의 처단을 강요하고 광해는 인목대비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가지만 결국 다시 쓰러지고 만다.



#11 온갖 서러움과 나약함, 자괴감으로 가득 찬 광해는 왕좌를 물러나려 하고,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자아는 서얼로서 받았던 친대와 면박을 한탄하며 의미 없이 헤매인다. 사만민이 곁에 남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허균이 나타나 그에게 잘못 쓴 역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역사를 바로잡기를 청한다. 충격에 힘싸인 사관과 흡연히 떠나는 허균의 모습이 대비된다.



#12 왕좌를 떠난 광해는 함께 있었던 사관에게 자신의 진실함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평안을 원하지만, 수많은 유언비어와 백성들의 한탄을 보고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13 이이첨과 대연해 함께 손을 잡고자 하지만 쉽게 타협할리 없는 이이첨은 광해에게 더 큰 댓가를 요구하고 쓰러져가는 광해에게 비소를 보내며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알린다. 허균은 이런 광해에게 또다시 강한 임금이 되라 말하고 광해는 이에 결정적으로 물이치듯 결심한다.



#14 이이첨은 인목대비 목을 치기 위한 위장된 궂판을 주재하고 이때 등장한 광해는 변장한 무당을 회봉한다. 마침내 칼을 휘두르며 파를 부르는 싸움이 벌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광해는 독립국 조선의 제왕이 되기를 거칠게 길망한다. 기회를 잡은 유생들은 한산의 뜻에 따라 대신들을 처내고 반정을 일으킨다.



#15 장애를 제거하고 엄원 하던대로 제왕에 자리에 오른 광해. 그러나 그의 행적은 광기와 두려움으로 물들어간다. 그 어느 때 보다 허균의 빙자리가 크게만 느껴지는데, 그런 광해에게 허균이 나타나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이었음을 알리고 제왕의 땅, 교하로 갈 것을 권한다.



#16 유생들의 반정은 성공하여 새 주상을 세우고 광해를 제압하기에 이른다. 광해의 화의에 반하여 반청복별을 내세우고 그를 하야시키는 유생들. 이른 답답히 받아들인 광해는 마지막 부탁으로 허균의 수족을 찾아 달라 하고, 그와 함께 제왕의 땅, 교하로 먼 걸음을 떠난다.



#17 그 뒷모습을 아스라이 바라보는 신입사관과 노사관. 광해의 역사는 노사관에게서 신입사관에게 전해진 것이다. 광해의 역사를 가슴에 묻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과 함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승대극의 2007년 동문합동공연을
죽아드립니다.

@net (주)마넷정보기술

정기공연 영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21년 6/13	연홍소인극 "절세 명종나름재 응의달보" "대비극 노예의 힘"		
2	1923년 7/7,21	전월극 "우리의 흥친 ''기개연간'' 동북부"		
3	1925년 7/28,29	"소인연극" 고학생 후원회 주관		
4	1965년 11/	"폐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식 作	이반	전진호
5	1968년 10/28	"Our Town" Thornton Wilder 作	이태주	
6	1969년 10/10	"의자들" E. 이오네스코 作	고봉인	
7	1969년 10/28,29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作	고봉인	
8	1970년 5/15	"聖者的 懲罰" John Millington Synge 作	한명제	
9	1970년 10/28,29	"승부의 終末" Samuel Barclay Beckett 作	김양기	
10	1971년 5/26,27,28,31 6/1,2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作 "건널목 삽화" 윤조명 作 "담배책속에 대하여" 안운체 作 "황금단지" 투라우터스 作 "고도를 기다리며" 시무엘 베커트 作	정홍희 주정서 한명제 유근배 차현재	
11	1971년 11/4,5,11	"저격병의 그림자" 신오개이사 作	차현재	
12	1972년 5/25,26,27	"생일파티" H. 펀터 作	한명제	
13	1973년 5/21,22,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두렌마트 作	고봉인	
14	1973년 10/25,26,27	"탕" H. 펀터 作	김득남	차현재
15	1974년 5/25,26,30	"정의의 사람들" A. 까뮈 作	정홍희	
16	1975년 6/9,10,12,13	"싸움터의 산책" "도스토옙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연홍순
17	1975년 10/29,30,31	"비디안과 방화범" Max Frisch 作	김기열	안홍순
18	1976년 6/1,2,3	"인터넷" 창 글로드 반 이탈리 作	김기남	김득남
19	1976년 10/25,26,27,28	"법" 창 글로드 반 이탈리 作	김영덕	
20	1977년 6/15,16,17,18	"EQUUS" 피터쉐퍼 作	백경식	김영덕
21	1977년 10/10,11,12,13	"EQUUS" 피터쉐퍼 作	방영철	김영덕
22	1978년 6/5,6	"Courier Point" Olov Hartman 作	방영철	김영철
23	1978년 10/24	"EQUUS" 피터쉐퍼 作 (대학연극제참가)	만승기	김영덕
24	1979년 6/18,19	"한강2979" 김영덕 作	정재호	이병국
25	1979년 9/29,10/2	"초본" 오대석 作	이정필	황정순
26	1980년 11/5,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플리크 作	엄세범	백양원
27	1981년 6/12,13,14	"달맞이 꽃" 김병중 作	전석근	황정순
28	1982년 5/12,13	"끼리풀리" A. 까뮈 作	임태웅	자숙
29	1982년 10/7,8	"웨드우 박스" M. 크리스토퍼 作	전희식	황정순
30	1983년 6/20,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두렌마트 作	김성민	김영덕
31	1983년 10/7,8	"트레비" John Bowen 作	이원우	오정열
32	1984년 5/24,25,26	"도가니(The Crucible)" A. Miller 作	이종규	오세환
33	1984년 10/11,12,13	"빈천소" John Stoltenberg 作	차세훈	이용섭
34	1985년 5/9,10,11	"빈민굴" John Stoltenberg 作	김상연	이용섭
35	1985년 11/21,22,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 과레스카 作	마음민	송기범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36	1986년 6/4,5,6	"EQUUS" 피터쉐퍼 作	허설무	하승민
37	1986년 9/11,12,13	"교를소" D. 이모네스코 作	관상준	송기범
38	1987년 6/3,4,5	"한 여름밤의 꿈" by W. Shakespeare 作	이준석	오정열
39	1987년 9/10,11,12	"오히" A. 까뮈 作	오정열	박경근
40	1988년 5/2,3,4	"세 번은 끊게 세 번은 길게" 이어령 作	이충일	오정열
41	1988년 10/6,7,8	"안데뇌? 웃네뇌?" by Dario Fo 作	권대수	송근호
42	1989년 5/25,26,27	"농녀" 윤조명 作	천승범	안선후
43	1989년 10/10,17,18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作	오정열	이반
44	1990년 5/24,25,26	"안디고네" 장 이누이 作	권대수	이준석
45	1990년 8/30,31,9/1	"황씨연대기" 황석영 作	천승범	이경민
46	1991년 9/5,6,7	"생일파티" H. 펀터 作	남재우	권승해
47	1991년 9/5,6,7	"날개" 이상 作	양현준	관현진
48	1992년 3/19,20,21	"우린 나발을 풀었다" 김상렬 作	임경화	정현용
49	1992년 9/17,18,19	"금관의 예수" 김지하 作	송석환	송근호
50	1993년 5/20,21,22	"세일즈먼의 죽음" by A. Miller 作	황광식	박현상
51	1993년 10/21,22,23	"매시 맥시" 김상수 作	소장호	박현상
52	1994년 5/26,27,28	"굿 닉터" 님 사이먼 作	정석용	소장호
53	1994년 9/29,30,10/1	"안티코네" 소포클레스 作	소장호	박현상
54	1995년 5/25,26,27	"상자속의 여자" 김은미 作	현승환	류성환
55	1995년 11/26,27,28	"나의 리듬 오렌지 나루" JM. 바스콘셀로스 作	김은신	남재우
56	1996년 3/7,8,9	"자살" 김현목 作	한석운	손미라
57	1996년 9/5,6,7	"목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펠리엄TM 作	조태희	이충희
58	1997년 3/13,14,15	"우리 읍내" 손론 외일대 作	신하영	서수경
59	1997년 10/8,9,16,17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作	엄세범	정홍희
60	1998년 3/18,19,20	"살인 놀이" by E. 이오네스코 作	관내리	이정미
61	1998년 11/26,27,28	"몰고기의 죽체" 유미리 作	윤장한	조태희
62	1999년 3/11,12,13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이정원 作	이문재	이경희
63	1999년 9/2,3,4	"세상 놔기" 이정원 作	이정원	이경희
64	2000년 5/4,5,6	"아름다운 시인" 장진 作	이은재	이경희
65	2000년 8/31,9/1,2	"소나기" 황순원 作	김귀하	박경근
66	2001년 3/29,30,31	"언간에 대한 예의" 서정운 作	이목재	서정운
67	2001년 9/6,7,8	"바리보다 달아가다" 김희진 作	서정우	김희진
68	2002년 3/13,14,1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고데 作	김경길	김경진
69	2003년 3/6,7,8	"옥수동에 서면 입구정이 보인다" 김대수 作	이미나	윤장한
70	2003년 9/4,5,6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사무엘 베커트 作	김성은	최연경
71	2004년 6/3,4,5	"평화씨" 아리스토 파데스 作	김성은	강혜경
72	2005년 3/2,3,4	"마술가게" 이상범 作	김성은	이숙제
73	2005년 10/6,7,8	"희비쿠사" 흥가이 作	정한길	한재진
74	2006년 6/1,2,3	"현준애한" 박근영 作	이고운	이목재
75	2006년 9/21,22,23	"사랑에 관한 일곱 가지 소묘" 위성선 作	김병현	김승대
76	2007년 5/31,6/1,2	"굿 닉터" 님 사이먼 作	신영준	한재진

신입생 환영 공연 연보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3/10.11.12.	안마와 텀-Aning 작		김홍수
2	1976/10/29.30.31	보석과 연인-이강백 작		김득남
3	1977/3/16.17.18	줄법-운대성 작	전경호	연홍순
4	1981/3/30.31	셋-이강백 작	한 철	정재호
5	1982/3/24.25	ARIA DA CAPO -E.St.V.Millay 작	이영환	오세한
6	1983/4/16	입금님 귀는 당나귀 귀-김용학 작	최시영	이용섭
7	1984/3/8.9	플랙 코미디-피터 에퍼 작	전희식	홍여석
8	1985/7/20	개인의 소공간-N.Herald 작	차세훈	김인보
9	1986/3/17.18.19	ARIA DA CAPO -E.St.V.Millay 작	이영민	하승민
10	1987/3/12.13.14	인형의 집-헨리 입센 작 이길영	김정은	위성신
11	1987/3/12.13.14	더러운 손-J.P.샤르트르 작	백음현	박경근
12	1988/3/24.25.26	불가불가-이현희 작	천승범	황금실
13	1989/3/23.24.25	혹인수녀를 위한 전화곡-A.Camus 작	홍덕태	박경근
14	1990/3/8.9.10	우울증 환자-Bottoh Strau B 작	이영민	안상준
			박혜숙	박로라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5	1991/3/7.8.9	노크 노크 플러스 파이파 작	정현용	이범준
16	1992/5.28.29.30	꼼 먹고 물 마시고-이근상 작	김승겸	양현준
17	1993/3/11.12.13	페도사-George Kaiser 작	소장호	박원상
18	1994/3/10.11.12	어린왕자-쌩떽쥐베리 작	이명성	홍석환
19	1995/3/9.10.11	봄날-이강백 작	양명호	장석용
20	1996/5/30.31/6.1	울어라 뱃고동아-심준기 작	정체훈	김형근
21	1997/5/29.30.31	로물루스대제-F.뒤렌마트 작	박정극	정석용
22	1998/6/5.6.7	결혼/아풀로-이강백 작	강길호	류민주 안병진
23	1999/6/3.4.5	자매/라투아니아	홍신택	권내리
24	2000/11/16.17.18	도덕적 도독-Dario Fo 작	김명진	강길호
25	2002/5/30.31/6.1	노부인의 방문-F.뒤렌마트 작	김혜정	서정우
26	2003/5/29.30.31	택시드리벌-장진 작	김종백	한주영

승대극회의 봄날은 가고 새날이 온다. (87학번 송근호) -승대극회의 역사와 동문합동공연을 바라보며-

386의 세대가 가고 있다. 2007년 내 나이-40세. 더 이상 60년대 출생한 80년대 학번의 30대인 세대가 아니라 40대에 입문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1987년은 까마득한 시절의 기억이다. 당시 80년대의 학번들은 맥주보다는 막걸리에, 따뜻한 도서관의 책내음보다는 최루탄의 냄새에 더욱 익숙했으며, 그리고 강의실의 공부보다는 극회실의 대본에 더욱 목 말라했다. 그리고 2007년 우리가 찾은 승실대학교의 운동장조차 보기 어려운 교정에는, 없어져버린 대학극장을 뒤로 하고 위대한(?) 한경직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일개 개인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의 역사일 것이다. 우리가 공연하는 동문합동공연 광해의역사만큼이나 모든 개개인의 삶도 하나의 위대한 소사(小史)임에는 틀림없다. 하물며 길 계는 1912년의 초연과 짧게는 1965년 아래로 진행된 100여회의 공연은 승실대학교의 자랑이며 위대한 승대극회의 역사이며, 승대극회를 거쳐간 많은 극회인들의 땀과 눈물일 것이다.

역사는 생물(生物)이다. 이제 우리의 무대였던 제1공학관 대학극장은 없지만, 대학극장만 큼의 열정과 노력은 재학생의 뜻으로 온전히 남아있을 것이며, 졸업한 선후배들은 치열하게 살았던 극회인의 모습처럼 더욱 열심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승대극회인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한다. 그리고 지금은 승대극회라면 또 술(?)이나며 지긋지긋해 하는 나의 아내와 사랑하는 딸 윤선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승대극회인은 연극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가족을 사랑한다고 목청높여 소리지를 수 있다.

해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승대극회의 봄날은 간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욱 파릇파릇한 후배들의 새날이 피어날 것이다.

승대극회 2007년 동문합동공연을 축하드립니다. **ECLAY** 이클레이
Creative Design Company

졸업생 명단

- 정종화, 한영제, 안흥순, 황정순, 오세환, 김인보, 전석근
 1965 이명수, 신현섭
 1970 차현재
 1973 김홍수
 1974 김기열
 1975 서동철, 이정일, 한 철
 1977 이병국, 이용섭, 정재호, 황성선
 1978 지숙, 흥려석
 1979 엄세범, 이종규, 한홍석
 1981 강길호, 서도원, 음태웅, 이영구, 이찬수, 장성수, 전희식
 1982 김선중, 김창규, 김희명, 문경애, 박경근, 백윤현, 오정렬, 유영록, 이재영, 이현우, 차세훈, 최민구, 한만용
 1983 김미경, 김상현, 김정은, 박경민, 위성신, 이재녕
 1984 김경숙, 김은영, 김형대, 류재연, 류근화, 배비호, 송기범, 이상민, 이영민, 이은희, 최윤희, 하승민, 허공, 홍은희
 1985 김인섭, 박서림, 안상준, 안선후, 왕동미, 이길영, 이승하, 이준석, 황금실
 1986 권형진, 김수진,김장우, 김현순, 박준희, 송미경, 천승범, 최정화
 1987 권태수, 손진용, 송근호, 임경화, 정현용, 조영화, 홍석환, 백로라
 1988 권승혜, 김옥경, 남재연, 박원상, 황명식
 1989 소장호, 이경희, 진상범, 판숙경, 홍은영
 1990 김문화, 남재우, 양현준, 정석용, 현승옥
 1991 김상겸, 김소희, 이충희, 한석윤, 홍석환
 1992 류은숙, 송숙희, 이명성, 조태희
 1993 류성환, 박정극, 손미라, 양명호, 장재연, 이정원
 1994 류민주, 박시현, 서수경, 이지연, 임가영, 정대교, 장빈
 1995 권내리, 김귀하, 박지희, 신하영, 이정미
 1996 김명진, 박영신, 박은혜, 서정우, 서정훈, 이경희
 1997 강길호, 오민석, 유선영, 이세훈, 차상우
 1998 강대인, 김영걸, 김태욱, 백종혜, 윤장한, 최연경
 1999 이경미, 한주영, 이경우, 김종백, 김희진
 2000 이육재, 강혜정, 강유미, 최우승
 2001 이미나, 이상혁
 2003 김구식, 김성은, 김재우, 박지승, 신영준, 원지은, 윤대현, 이원진
 2004 김병현, 김승태, 이고운, 이연훈, 정한길, 한재진
 2005 이경윤, 이한샘, 장민재
 2006 김봉성, 김윤배, 민지은, 박용혁, 박미희, 박은지, 박한경, 서동현, 유병기, 정지예, 정현승
 2007 김현우, 김진욱, 김명희, 박인수, 정다운, 이현종, 이보라



천년제국 1623년